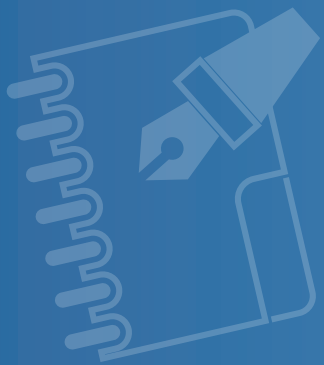


단독 못쓰는 기자



한국금융

장호성 기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기 전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햇수로 8년 차에 접어드는 기자 생활이지만, 스스로를 ‘좋은 기자’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기자, 좋은 기사를 평가하는 기준과 경계가 지극히 모호해지면서 이런 판단 자체가 어려워졌지만, 일단 업계에서는 ‘단독’ 기사를 많이 쓰면 좋은 기자로 평가하고는 한다.

그러나 고백하건대 나는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들 다 쓰는 ‘단독’ 기사를 거의 쓰지 못한 기자였다.

‘단독’ 보도란 뉴스에서 ‘독점적으로 보도하는 특종’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

이 본래 의미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부터 단독은 그저 같은 소식을 남들보다 조금 빨리 올리는 ‘속보 경쟁’의 일환으로 변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새는 별로 새롭거나 중요하지도 않은 뉴스에도 딱하니 단독 딱지가 붙어있고, A 매체에서 나온 단독기사가 B 매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단독을 달고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보도자료 조금 일찍 받아서 썼다고 단독 붙이는 기자도 왕왕 봤다. 지나치게 많아진 매체와 기자들 속에서 취재 경쟁이 이상한 쪽으로 과열되다 보니 발생하는 폐단이 아닐까 싶다.

단독 경쟁은 무엇보다 남들보다 먼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기 전 인천계양은 방치된 쓰레기와 잡초만이 무성했다.

저 보도한다는 속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획과 탐구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내가 이 사안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동안 누군가가 사안을 낚아챌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분석력 있는 심층기사가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다.

언론사 입장에서든 단독이라는 단어가 주는 달콤한 유혹을 버리기 어려운지, JTBC는 몇 년 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자사의 단독 취재라고 해도 ‘단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가 손석희 사장 퇴임 후 이를 철회하고 똑같이 단독을 붙이고 있다. 이제는 뭐가 단독인지 아닌지 구분하기조차 힘들어진 판국이다.

내가 좋은 기자, 좋은 기사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 것도 이 지점에서였다. 단독을 많이 쓰는 기자가 과연 정말 좋은 기자가 맞나? 애초에 기자라는 직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란 무엇일까? 그저 가장 빠

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 나의 답은 NO고, 아마 대부분의 기자가 이 명제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기자’란, 지금처럼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우후죽순 비처럼 쏟아지는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 정보 중 진짜 ‘팩트’를 골라 독자들이 가장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사다. 이 과정에서 속보성이 조금 희생되더라도, 느릴지언정 정확하고 많은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이 오늘날 정보 홍수 시대 속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단독을 많이 쓰는 기자도 좋은 기자지만, 그것만이 기자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특기고, 누군가는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것이 특기인 것처럼, 나의 특기이자 기자로서의 지향점은 한결같이 ‘어려

부영 계열회사별 지분 현황(24년 1분기말 기준)												
▶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공정위 공시)												
구분	회사명	동일인 여중근	주주현황						특수관계			* 계열회사 상세
			나경수	이성훈	이성록	이성현	이서정	기타친족	자사주	계열회사기	우정학원	
국내 계열사	부영	93.8%	-	2.2%	-	-	-	-	3.2%	-	0.8%	100.0%
	광영토건	42.8%	-	8.3%	-	-	-	-	48.8%	-	-	100.0%
	남광건설산업	100.0%	-	-	-	-	-	-	-	-	-	100.0%
	남양개발	100.0%	-	-	-	-	-	-	-	-	-	100.0%
	부강주택관리	100.0%	-	-	-	-	-	-	-	-	-	100.0%
	대화도시가스	95.0%	-	-	-	-	-	-	-	-	-	95.0%
	동광주택산업	91.5%	1.1%	0.9%	0.9%	0.9%	0.9%	2.0%	-	-	2.0%	100.0%
	동광주택	-	-	-	-	-	-	-	-	100.0%	-	100.0%
	부영주택	-	-	-	-	-	-	-	-	100.0%	-	100.0%
	부영유통	-	-	-	-	-	-	-	0.0%	100.0%	-	100.0%
	부영환경산업	-	-	-	-	-	-	-	-	100.0%	-	100.0%
	무주역유산리조트	-	-	-	-	-	-	-	24.3%	75.0%	-	99.3%
	비와이월드	-	-	-	-	-	-	-	-	100.0%	-	100.0%
	전원종합개발	-	-	-	-	-	-	-	-	99.6%	-	99.6%
	오두리조트	-	-	-	-	-	-	-	-	100.0%	-	100.0%
	더글래식씨씨	-	-	-	-	-	-	-	-	100.0%	-	100.0%
	부영엔터테인먼트	-	100.0%	-	-	-	-	-	-	-	-	100.0%
국외 계열사	한라일보사	49.0%	-	-	-	-	-	-	-	-	-	49.0%
	에이치아이엠	-	-	-	-	-	-	-	-	100.0%	-	100.0%
	인전일보	-	-	-	-	-	-	-	-	49.9%	-	49.9%
	인전출판사	-	-	-	-	-	-	-	-	100.0%	-	100.0%
	부영비나	-	-	-	-	-	-	-	-	100.0%	-	100.0%
	부영라오	34.3%	-	-	-	-	-	-	-	65.7%	-	100.0%
	부영라오뱅크	-	-	-	-	-	-	-	-	99.0%	-	99.0%
	부영크레디트	-	-	-	-	-	-	-	-	97.8%	-	97.8%
	부영크레디트II	9.8%	-	-	-	-	-	-	-	39.2%	-	95.0%
	캄인텔	-	-	-	-	-	-	-	-	100.0%	-	100.0%
	부영크레디트뱅크	-	-	-	-	-	-	-	-	100.0%	-	100.0%
	시업탑 부영CC	-	-	-	-	-	-	-	-	100.0%	-	100.0%
	부영오스트레일리아	-	-	-	-	-	-	-	-	100.0%	-	100.0%

지배구조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부영그룹의 현황을 자세히 분석해서 보도했던 적이 있고, 업계 관계자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운 경제를 가장 쉽게 풀어주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쓰는 기사는 단독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남들보다 조금 늦을지언정 먼저 나온 기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부분을 대신 질문해주고 기사에 반영해 조금 더 꼼꼼한 기사를 쓰는 것에 주력해왔다.

3기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던 때, 대부분의 기사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나눠준 자료를 받아쓰기 바빴지만 나는 직접 현장에 가보는 것을 택했다. 실제로 가본 현장은 여전히 방치된 쓰레기부터 옷자란 풀들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했다. 나중에 국토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말만

착공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3기 신도시는 공사 준비 단계에 불과했다.

지금은 금융부로 옮겨왔지만, 기존에도 기자로 일하면서 들었던 칭찬 중 가장 기분 좋은 것은 “기자님 기사는 논문 같아서 읽기만 해도 공부가 된다”는 말들이었다. 판에는 의례적으로 한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추구해 온 좋은 기자로서의 가치가 그런 말들을 통해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뿌듯했다.

아마 나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앞으로도 단독기사는 못 쓰는 기자가 될 것 같다. 그 대신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금 느리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고 싶다. ♡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